

강신영 국립광주과학관장 인터뷰

“광주과학관, 우주 특화 전시관 만들 것”

지난 19일 국립광주과학관 2대 관장에 강신영(65) 전 전남대 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강 관장은 전남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미국 애크리데에서 고분자과학 분야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전국 국립대학과 산업대학원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강 관장은 개관 2주년을 앞둔 광주과학관의 위상 높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주과학관을 우주에 특화된 전시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빛고를 광주의 이미지를 도입해 ‘빛, 소리’를 주제로 한 콘텐츠 도입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 과학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원장으로 오게 된 이유가 있다면?

▲고분자과학을 전공한 과학자로서 그동안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외 활동에 참여했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늘 소망했다. 이제 관장으로 광주가 ‘과학도시’로 성장하는데 광주과학관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싶다. 광주는 아직 과학기술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및 광산업 같은 산업기반이 이미 구축돼 있다. 대학에는 훌륭한 연구업적이 있는 이공계 교수들의 인적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지역 자산을 제대로 활용해 광주과학관이 과학으로 소통하고 융합하는 과학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 국립광주과학관이 개관 3년차에 접어들었다. 향후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

▲국립과학관은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대구과학관, 광주과학관 그리고 곧 개관할 부산과학관 등 5개다. 이들 과학관이 전시하고 있는 콘텐츠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광주과학관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별된 특성과 전략이 필수적인 것이다.

광주과학관은 ‘빛과 소리 등 과학과 예술의 융합분야’ 특성화 과학관이다. 빛과 소리는 우주창조의 근본이다. 빛과 소리, 그리고 우주를 아우르는 주제로 전시물을 기획하고, 이를 과학관의 상징적인 전시물로 개발해 광주과학관



빛고를 광주 이미지 도입
빛, 소리 주제 콘텐츠 특화
과학문화 기부운동 확산
교육속박동 건립 추진

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의 특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체험시설 부족 및 상설운영전시관 부실 지적도 있다.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은?

▲예산으로 보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꼭 광주과학관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국립과학관은 예산에 수입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다. 국립과학관 입장에서는 과학관이 갖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는 국립과학관이 추구하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를 위해 과학문화 창출을 위한 기부운동을 확산시키겠다. 예술과 체육, 교육 분야에는 다양한 기부 활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과학문화 기부는 생소하다. 때문에 개인뿐만 아니라 주요 기관까지 기부활동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성공적 모델 창출에 온 힘을 다 하겠다. 기

부가 활발해질수록 광주과학관이 지역의 과학문화 기반조성과 미래 창의적 과학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남지역 청소년들이 당일 일정으로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해법은 있나.

▲교육속박동 건립은 광주과학관의 숙원사업이다. 광주과학관은 전남해안에 위치한 도시지역의 학생들에게도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남 지역은 국내 도시의 60%가 분포돼 있고 그곳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전남에 가장 많다. 이들 학생들이 과학체험을 위해 광주과학관을 방문할 경우 당일 치기가 불가능하다. 과학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과학캠프도 숙박동이 없어 외부 시설을 빌려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속박동 건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구체적인 협의 단계다.

- 지역 과학계와의 연계방안은?

▲광주과학관은 지역의 과학문화 보급·확산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에 과학기술 가치가 접목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할 예정이다. 예컨대 ‘창조과학포럼’같은 활동을 통해 과학문화를 확산하고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노벨 드림 사이언스’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해 과학적 잠재력과 창의력을 일깨우는 활동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광주과학관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역 과학계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함께 협의하겠다.

- 과학관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광주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광주과학관은 정부와 광주시가 광주·호남지역민을 위해 함께 건립했다. 광주시는 40%의 예산을 지원했고, 지금도 과학관 순수운영비의 40%를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많은 지역민이 과학을 즐기고 체험하는 것만큼 과학관의 더 큰 보람을 얻을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왔다. 한 말씀 드리자면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해 더 많은 관심 및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다. 과학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글·사진=임동룡기자exian@

伊 밀라노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홍보관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내에 개관

광주시는 26일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홍보상징관”이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뮤지엄 내에 개관했다”고 밝혔다.

세계 디자인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 광주의 독창적인 문화를 소개하고 세계에 디자인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24일 오전 11시(현지시간)에 열린 개막식에는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디자인산업 관계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운영진 광주시장은 “세계 디자인의 심장부 밀라노에서 활동하는 디자인 관계자에게 새로운 문화와 디자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광주를 널리 알리려고 왔다”면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크게 성장

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특히 세계 디자인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를 비롯한 유명 디자이너들이 대거 참석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공적인 전시를 기원해 눈길을 끌었다.

윤 시장은 이탈리아 유명디자인 스튜디오, 밀라노엑스포, 베니스비엔날레 등을 거쳐 27일 귀국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윤장현(왼쪽 세번째)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이탈리아 밀라노 트리엔날레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2015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제홍보상징관 개막식에서 참석 귀빈들과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전남도·경북도 상생협력 사무관 인사 교류 나선다

전남도는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경북도와 사무관(행정 5급) 1명을 1년 동안 서로 파견하는 인사 교류에 나선다.

인사 교류는 상생 방안인 영호남 마추보기 프로젝트를 동시화합포럼 상생협력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전남도와 경북도는 우선 사무관 공무원 1명을 파견해 상호 정책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봉사·여성·세마을 단계 등 각계 각종 교류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두 기관이 인사 교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남도 이상용 사무관은 경북도 관광진흥과에 경북도 이동욱 사무관은 전남도 해양항만과에 각각 근무하게 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행정경험 풍부 시정현안 추진 동력 적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씨

광주시 신임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김종효 전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이 임명됐다.

여수 출신인 김종효 실장은 순천고와 건국대를 나와 행정고시 37회로 지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시 법무담당관, 전략산업과장, 경제산업정책관, 일자리창출지원관, 창조도시법무담당관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2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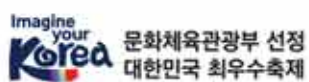
이후 행정부 사회통합지원과장, 감사담당관을 거치면서 폭넓은 중앙 네트워크와 행정경험을 쌓아왔다. 김 실장은 광주시 재직 당시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소재 단지 조성과 일차



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추진했던 만큼 윤장현 시장이 이끄는 민선 6기 주요 시정현안에도 추진동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인사여건상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뒤, 행자부 및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위공무원단 심사 절차를 거쳐 직무대리를 해제할 계획이다. 한편 신임 기획조정실장 임명에 따라 강신영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www.gangjinfes.or.kr 1688-1305



느껴라! 즐겨라! 경험하라! 강진청자축제 2015. 8. 1(토) ~ 8. 9(일)

최고의 장작꾼을 찾아라 - 2015 전국 화목가마 장작패기 대회

- 일 시 : 8. 5.(수) 13시 ~ 17시 / 축제장 상설무대 앞
•모 집 : 500명 / 100팀
•시 상 : 1등 200만원, 2등 100만원, 3등 50만원, 장려상 15만원
•신 청 : 인터넷(http://gangjinfes.or.kr), 이메일(yjs5753@hanmail.net)
•문 의 : ☎061-430-3814(강진군 스포츠산업단 이재연)

KBS TV 소 진품명품 출장감정

- 기 간 : 8. 4.(화) 13시 ~ 15시 / 도예문화원 시청각실
•대 상 : 도자기, 고화(古畵), 고서(古書), 민속품
•신 청 : 이메일(sys680310@korea.kr)
•문 의 : ☎061-430-3422(강진군 민원봉사과 송여심)

청자 판매 경품 이벤트

- 추첨일 : 8. 9.(일) 17:00 / 상설무대
•시 상 : 1등(1명 차량 k3 1대<부가세, 제세공과금, 탁송료 당첨자 부담>), 2등(1명 유럽여행권 2매), 3등(100명 고급반상기 각 1점)
•내 용 : 한옥청자명품관에서 청자를 구입하는 관광객에게 10만원당 응모권 1매 지급
•문 의 : ☎061-430-3331(강진군 문화관광과 윤성일)

제1회 청자가요제

- 일 시 : 8. 2.(일) <예선>09시 ~ 15시 / 본선:20시 ~ / 축제장 상설무대
•대 상 : 전국 국민
•시상금 : 총 700만원
•신 청 : 이메일(news3330@naver.com)
•문 의 : 061-430-3222(강진군 환경축산과 이춘재)

제7회 전국 청자백일장 대회

- 일 시 : 8. 3.(월) 13시 ~ 17시 / 청자박물관 경내 대회장
•대 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신 청 : 강진군도서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1-430-3839)
•문 의 : ☎061-430-3847(강진군 도서관 박은주)

제10회 전국 어린이 점토빚기 경진대회

- 일 시 : 8. 6.(목) 10시 ~ 15시 / 청자박물관 경내 대회장
•대 상 : 전국 유치원생(5세 이상), 초등학생
•신 청 : 단국대 도예연구소
•문 의 : ☎010-3204-0164(단국대 도예연구소 정호진)

남도답사1번지! 강진군 문화유적투어

- 기 간 : 8. 1.(토) ~ 8. 8.(일) 14시 ~ 17시(축제장 남문 입구 출발)
•코 스 : 청자촌 → 영랑생가 → 다산초당 → 백련사 → 무위사 → 청자촌
•비 용 : 무료 / 문화관광해설사 동행
•신 청 : 이메일(ehdtjq7115@korea.kr)
•문 의 : ☎061-430-3333(강진군 문화관광과 최동섭)

제26회 청자골 사생대회

- 일 시 : 8. 4.(화) 13시 ~ 17시 / 청자박물관 경내 대회장
•대 상 : 광주·전남 초등학생
•신 청 : 강진군도서관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1-430-3839)
•문 의 : ☎061-430-3847(강진군 도서관 박은주)

제17회 전국 대학생 물레성형 경진대회

- 일 시 : 8. 7.(금) 10시 ~ 18시 / 물레성형 부스
•시 상 : 대상 100만원(부상 전기물레), 우수상 50만원 등
•신 청 : 강진청자디자인연구소
•문 의 : ☎010-4552-5802(강진청자디자인연구소 강광목)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